

[TV]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강성연 "아줌마로 돌아왔어요"

MBC 8부작 새 월화극 '현호모양치' 주연... 오늘 첫방영

드라마 제목은 '현호모양치'인데 여주인공은 와이어 달고 콩후를 한다?

MBC의 새 월화 드라마 '현호모양치'(극본 윤영미, 연출 이재원)에서 강성연(31)이 맡은 역은 현호모양치를 꿈꾸는 소심한 아내 경국희.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두 아들을 건사하고 남편을 내조하면서 슈퍼마켓 점원으로 일하는 평범한 주부다.

하지만 제목이 암시하듯 경국희는 항상 현호모양치 직전에서 무너진다. 살림이건 육아건 2% 부족하다.

어디 그뿐이라 '슈퍼우먼' 현호모양치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경국희는 재테크는 못할망정 잠깐의 실수로 프리미엄이 엄청 붙은

아파트마저 놓쳐버리고 동네 아줌마들과 '현호모양치 미달클럽'을 만든다.

말 그대로 현호모양치의 기준에 '미달'하는 아줌마들이 클럽의 회원. 이 와중에 남편은 옛 여자친구를 만나 바람까지 피운다.

결혼도 하지 않은 강성연에게 경국희란 캐릭터는 어떤 인물일까. 강성연의 얼굴에 안타까움까지 보인다.

"참 열심히 하는데 시대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잘하지는 못하는 여자예요. 몇 년 전이면 완벽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슈퍼우먼까지 요구하니까 항상 몇 퍼센트 부족한 운 없는 여자죠. 그래서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열심히 나만의 세상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



고 살았는데 조금만 나가보니까 문제투성이 인거죠." 그래서 경국희는 부인이 일어나 집을 나간다. 자전거 타고 애들 학교에 나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은 옛날 여자친구를 만나 "아내가 답답하다"고 꾸짖하는 것도 모자라 물레 연애까지 한다.

배우준 주연의 판타지 사극 '태왕사신기' 방송이 한 달 늦게지면서 8부작으로 기획된 '현호모양치'는 28일 첫 방송된다.

KBS '도전! 주부가요스타' 600회 특집 방송

최고 애창곡 '바람에...', 최다 출연 최유나

95년 2월 첫 회를 방송한 KBS 2TV '도전! 주부가요스타'가 600회를 맞아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부터 특집 방송을 내보낸다.

이날 특집에는 지난 12년 동안 연발결선 대

상 수상자 12명 중 10명의 주부가 한자리에 나와 경연을 펼친다.

또한 600회 동안 주부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 노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의 최

세상 속으로 (오후 1시30분)

가장 화려한 축제, 늑대와 함께 사는 부부 등 특이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로 세계의 곳곳을 찾아가본다.

이번 주 방문할 곳은 세계 최고의 오지인 볼리비아 칠레 국경. 볼리비아는 형형색색의 신비한 사막이 길게 뻗어있다. 또 해발 4천미터에서 흐르고 있는 라그나를

료 호수에는 플라밍고 떼가 살고 있다.

볼리비아 여행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소금 사막. 소금사막을 가다보면 곳곳에 무덤과 십자가가 있다. 이 무덤과 십자가는 관광을 하다 차가 고장나서 돌아 가는 길에, 길을 잃은 관광객들의 무덤인 것이다.

진희, 프로그램에 최다 출연한 최유나, 주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경호 등 가수들이 특별 출연한다.

최진희의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는 지금까지 40명의 주부가 불러, 최다출연곡 집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역대 MC들을 만나보고 12년에 걸친 방송의 생생한 모습을 돌아본다.



하지만 끝없이 펼쳐진 소금사막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Advertisement for LG Electronics (Living) featuring a woman on a horse and text about product quality and prices.

케이블·위성TV 28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